

김영남 만난 여야대표 “남북 국회회담 열자”

면담 불발 하루만에 성사 만수대 의사당서 50분 대화 “함께 손잡고 통일로 매진”



‘화기애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찾은 여야 3당 대표가 19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영남 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 중인 여야 3당 대표와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면담이 불발 하루 만인 19일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금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을 만나 면담했다.

전날 남측의 일정 착오로 발길을 되돌려야 했던 북측 인사들은 이날도 만수대의사당 접견실에 먼저 나와 기다리는 배려를 보였다. 이들은 접견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회의장으로 이동, 약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여야 3당 대표는 연내 남북 국회회담 개최와, 아울러 3·1 운동 100주년 행사 공동 개최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날 면담 취소를 상기하며 “학수고대의 보람이라는 게 바로 오늘 같은 광경을 놓고 예로부터 쓰던 의사표시라고 생각된다”며 전날 면담 불발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듯한 뜻을 전달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이해찬·정동영 대표와의 오랜 친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통신을 통해서 자료를 읽을 때마다 리해찬 선생과의 옛 추억에 잠기곤 했다”며 “정동영 선생도 다른 동무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내 물어봤지요. 남북에서 정 선생이 지금 무슨 활동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백의중군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군요”라며 웃었다. 그는 또, “어제도

(정 선생이) 다시 원내로 복귀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손잡고 통일 위업을 성취하기 위해 매진하자고 했다”고 말하고 이정미 대표를 향해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더 뜨겁게 합심해서 통일 위업 성취에 매진해 나가자”고 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정 대표가 “위원장님은 10년 전에 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변함이 없으시다”며 화답하자 “우리 통일 위업을 성취할 때까지는 영원히 오 모습대로 활기 있게 싸워나갑시다. 우리가 모두 잘 장부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대장부가 됩시다. 민족의 대의는 통일이 아니겠냐”고 화답했다.

이해찬 대표는 무엇보다 과거 보수정권 시절 남북관계가 후퇴한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6·15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잘 나가다가,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잘 나가다가 그만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지난 11년 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돼 여러 손실을 많이 봤다”며 “이제 저희가 다시 집권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좋은 기회가 왔다. 이번에는 남북관계가 영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대표는 방북 첫날인 전날 오후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는 일정이 잡혀있었으나 정작 해당 장소에 나오지 않아

면담은 불발됐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배석자 숫자가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장관들이 이쪽에 합류를 했다”면서 “그래서 당 대표 3명과 장관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우리 쪽이 불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면담 일정지 다시 잡힌 배경에 대해 “어제 연회에서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 면담을 해야 한다”고 하니가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하셔야 한다”며 즉석에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박지경 기자 jkpark@

민주 “평화의 길 활짝”... 한국당 “공허한 선언”

평양공동선언 여야 반응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공식화는 분단 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으로, 이로써 한반도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에서 더욱 진전된 비핵화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운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거나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9월 평양공동선언은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핵 폐기의 핵심은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라며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의 경우도 ‘미국이 상응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렸다”고 평가절하했다.

바른미래당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삼화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환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계획을 밝히는 등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높이 샀다. 정의당도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했다”라면서 힘을 보탤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드디어 녹슨 철조망을 걷어낼 때가 왔다”라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결과 대립을 끝내고 전쟁 종식의 문이 열렸다”라고 언급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임동욱 기자 tuim@

도덕성 공방에 정책 검증은 뒷전

교육 유은혜·산자 성윤모·고용 이재갑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는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제, 재산신고 축소, 월세 대납 등의 논란 및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피감기관이 소유한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배우자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한 점도 또다시 거론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성윤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과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수야당은 탈원전 비판에 질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여당과 성 후보자는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성 후보자가 2006년 산업부 전력산업팀장으로 있을 때 원전 추가 건설 등을 내용으로 담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담당할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이라고 말했고 후보자도 주무팀장으로 이 정책을 뒷받침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원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에너지 전환을 산업정책으로 밀고 가겠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에너지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건강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에너지전환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수명이 다하고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하나하나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2023년까지는 오히려 신규 원전이 5개 는다”며 “문재인 정부만 놓고 보면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 정부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을 둘러싼 논란 등이 주로 다뤄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 전문은행법 오늘 처리

본회의 상정...대주주 지분 취득 전면 금지

국회 정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주내용으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

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여야 합의를 이룬 이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

김종대 “비핵화 합의해도 美 동의 얻어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9일 “남북정상이 비핵화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문에 명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 전문가인 김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이나 대화가 있다고 해도 큰 방향성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그 내용을 갖고 미국에 가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김 의원은 “합의된 내용을 기정사실화

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에 관한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보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이 핵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핵탄두는 어디 있고 원자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목록으로 만들어 신고하면 잘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